

스스로 수행하는 삶 이끄는 징검다리

템플스테이의 과제는?...

템플스테이 관련 시설의 규모 확장, 프로그램의 다양화 등 내·외적인 성장이 눈부시다. 사람들은 이제 템플스테이가 정착단계에 들어섰다고 한다. 하지만 조계종 불교문화사업단 템플스테이 이동의 팀장은 “정착, 안정기로 보기 힘들다. 실무현장에서는 성장기로 넘어가는 단계로 보고 있다”며 “한국을 대표하는 문화체험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체계 구축, 전문인력 양성, 재정적 안정화, 프로그램의 다양화와 체계화, 인력구축, 시설 및 재반시설 확보 등의 기본적인 문제부터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템플스테이는 한국 문화의 세계적 홍보와 전파, 불교사상과 문화 확산에 일신하고 있다. 종교의 역할과 함께 관광적 측면에서도 기대가 큰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현재 100여 개의 운영등록 사찰이 있지만 모두 다 성공적인 결실을 내고 있는 것은 아니다. 홍보 등을 통해 활발한 활동을 하는 곳이 있는 반면 담당자의 의지 부족, 사찰 내에서 템플스테이에 대한 인식 부족, 열악한 환경, 인력부족 등으로 부진한 실적을 내는 곳도 많다.

2009년 9월 14~19일, 21~26일 미얀마에서 진행된 템플스테이 운영자 연수 리셉션에서 실무자들은 “대중생활, 신도관리 등 사중 업무와 실무를 진행하고 있어 어려운 점이 많다” “실무자가 장기간 근무할 수 있는 환경제공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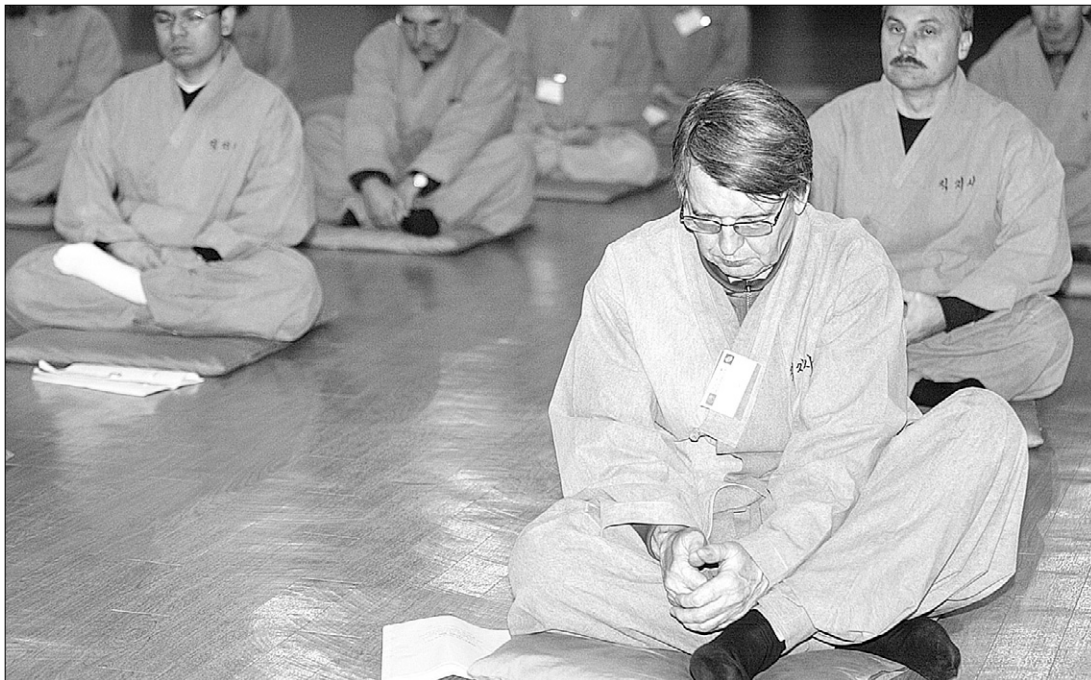
한편 스님들은 실무자의 △교육시설 확보 및 전문교육 필요 △실무자 급여 및 근무체계의 정립 △운영지정을 위한 경쟁은 필요하나 감압적인 관리 지양 △신규운영사찰을 위한 기본교육 및 비전 제시 필요 △사찰내부에서 템플스테이에 대한 인식과 지원을 지적했다.

불교문화사업단 단장 중훈 스님은 “그동안 젊은 고급인력이 와도 기본 근무조건이 보장돼 있지 않은 곳이 많아 쉽게 떠나고 했다”며 “현 실무자들의 이직률을 낮추기 위해 근무시간, 4대 보험 가입, 연봉 협상 등 기본적인 근무환경에 대한 사찰의 신중한 검토와 정책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스님은 또 “전담스님의 역할이 가장 크다고 볼 수 있는데 주지스님이 바뀔 때 마다 담당스님이 바뀌는 문제는 템플스테이 상설운영에 치명적이다. 템플스테이 전담자를 지정하고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업무 분리와 홍보강화 등 내부 역량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확한 메시지 전달이 중요

템플스테이가 시행 초기만큼 이색적이지는 않다. 참여자들이 늘어나고, 비슷한 프로그램을 특성화 하지 않고 모방이 그치는 사찰이 많아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다. 전국 템플스테이 담당자는 끊임없는 변화와 보다 참신하고 치밀한 기획, 사찰의 신앙적 특성이나 문화적, 환경적, 입지적 특성 등과 연계한 특화상품개발에 대한 압박을 받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흐름에 대한 지적도 있다. 영월 법흥사 광현준 포교 팀장은 “프로그램에 대한 관심화가 돼 ‘새로운 것’ ‘다양한 것’ ‘참가자 욕구 충족’ 등에 대한 강박관념을 가진다”며 “템플스테이를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주제 하나라도 확실히 전달할 것 △대상자들의 다양한 욕구 회생 △지속적인 변화에 대한 희생은 감행해야 한다. 정



외국인들에게 반가부좌가 쉬운 것은 아니다. 하지만 외국인들이 가장 관심을 갖는 것은 한국의 수행문화고, 수행체험에 대한 만족도도 높다. <현대불교 자료사진>

성장기로 넘어가는 단계... 다양성과 특성화 정착 돼야

실무자 장기간 근무할 수 있는 환경 제공 절실

확한 목표 전달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전체 인구의 0.1%도 아직 체험하지 않은 템플스테이가 변화보다는 각자 내실을 기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외국이 원하는 수행체험

외국인들이 템플스테이에서 가장 만족하는 것은 한국불교, 그 중에서도 수행 체험이다. 눈여겨 볼 것은 2007년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의 ‘템플스테이 운영현황 및 만족도’에서 국내 참가자들보다 예베리아 참선 등 한국의 수행문화에 대한 관심이 높다는 것이다. 예베, 다도, 참선, 속소, 음식 등에서 매우 높은 만족을 얻고 있다.

중훈 스님은 “템플스테이는 포교의 패러다임에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템플스테이의 운영 방향의 열쇠는 수행에 있다”며 “전 세계 우수 수행센터에 대한 벤치마킹, 지역과 환경적 상황을 이용한 프로그램 개발, 지정 사찰에 대한 과감한 선택과 집중, 템플스테이 운영자 교육을 통한 사명감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스님은 봉사자 등 부족한 인력에 대해 “재이민귀국자, 은퇴자, 향토사학자, 문화재 해설사 등의 자원봉사자를 충분히 활용하는 방안을 계획 중이다”고 말했다. 스님은 “일반인들에게 불교수행과 전통문화를 체험하게 해 한국불교의 세계화와 템플스테이의 대중화에 앞장 설 것”이라고 다짐했다.

금산사 수련원장 일갑 스님은 “템플스테이는 국제사업이다. 국내사업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 시대에 맞는 살아있

는 불교를 선보여야 한다. 한국 불교는 살아있는 불교다. 희망이 있다. 템플스테이가 앞서는 여가 선문문화의 대안으로, 스스로 수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안내하는 징검다리의 역할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템플스테이는 일상에 지친 심신을 재충전하고 스스로 되돌아 볼 수 있는 최적의 방안 중 하나임에 틀림없다. 올 4월에는 템플스테이의 허브 역할을 담당하게 될 템플스테이통합정보센터가 개관됐고 6월에는 건평 3000평에 300명을 일시에 수용할 수 있는 태화산 전통불교문화원을 개원했다. 신정동 국제센터 건립만을 기다리고 있다. 앞으로 도약은 관계자의 관심과 노력 여하에 달려 있다. 템플스테이가 한국불교는 물론 한국을 알리는 대표 브랜드로 ‘영원히 기억에 남는 프로그램’ ‘한국을 대표하는 꼭 체험해야 하는 상품’이 되기를 기대한다.

#템플스테이 체험수기공모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은 템플스테이 체험수기공모를 실시한다. 전국 100여 개 템플스테이 사찰의 프로그램 체험담과 참가 배경, 소감 등을 200자 원고지 5장 내외로 작성해 템플스테이 홈페이지(templestay.com)에 등록하면 된다. 응모접수는 10월 26일까지다. 대상 1명에게는 제주도 왕복 항공권(2인) 등 모두 4명에게 상품이 수여된다. (02)2031-2034

이상언 기자 un82@buddhapia.com

해외 템플스테이 성공사례...

템플스테이가 실시된 지 8년의 시간이 지났다. 급격히 성장하고 있지만 아직 걸음마 단계다. 템플스테이의 세계화를 위한 벤치마킹이 필요한 시점이다. 전 세계에는 정신수양과 결합된 상징적 문화관광 프로그램이 적지 않다. 그중에서 대표적인 곳은 초기불교 수행법인 위빠사나 명상을 가르치는 미얀마 ‘마하시 명상센터’, 짙에 묵으며 사찰요리, 다도, 온천을 즐기는 일본의 ‘슈쿠보(宿坊)’, 대규모 수행 센터를 갖추고 체계적인 연불 수행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 대만 불광산사 등이 유명하다. 이들 수행센터의 공통점은 종교성을 띠지 않고 어느 누구나 마음 수양을 할 수 있도록 개방돼 있으며 자유로운 수행을 추구하고 있음에 주목하게 된다.



티벳한 스님이 참가자들과 수행하는 모습.

●티벳한 스님의 프랑스 보르도 플럼빌리지 사원에 숙박시설을 갖추고 도시인들에게 섀터른 명상체험을 제공해 세계적인 명소로 떠올랐다. 티벳한 스님은 위빠사나 정념(正念)수행을 채택하고 있다. 또 자신이 하는 모든 것을 깨어있는 눈으로 보고 깨어있는 마음으로 이는 수행을 24시간 실천하도록 배려하고 있다. ‘밥먹을 때 밥 먹는다’는 것을 알고, 잠잘 때 잠잔다는 것을 안다’는 것이다. 이는 입제중 생활선의 대중화이기도 하다. 플럼빌리지에서의 법문은 걸으면서도 듣고 풀밭에 누워서도 앉아서도 듣는다.

1983년 제1회 여름수련회가 열렸을 당시 참석자는 117명, 대부분 베트남인이었으며 서양인들이 드문드문 끼어있었다. 9회 참석인원 1030명, 20회 1800명으로 늘어났고, 그 구성도 서양인이 주를 이루게 됐다. 프로그램은 1회에는 좌선과 걷기 명상, 차 명상, 스님과의 상담으로 간단했지만, 2002년에는 노래 명상, 지구와 접하기, 어린이를 위한 프로그램 등이 추가돼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였다.

●다람살라 투시센터

인도 다람살라의 투시타(tushita: 티룩부처님이 상주하고 있는 천상의 정토)센터는 티베트 스님들이 세계 140여 지회를 두고 있는 불교센터로 1973년 라사와 타베트에 있었던 수행처를 다시 세운 것이다.



투시타센터를 찾은 이의 대부분은 외국인이다.

이용자 대부분은 티베트 불교를 배우러 찾아온 서구인들이며 1년 내내 다양한 수행프로그램이 마련돼 있어 이곳은 항상 수행자들로 북적인다. 수행자들의 편의를 위해 지도법사들도 서양 스님들이 티베트 스님보다 많다.

수행프로그램은 초급, 중급, 고급으로 나뉘어 있으며 티베트 불교철학과 현대화된 명상코스도 이루어져 있다. 타종교인이나 비종교인들이 많이 체험하는 초보과정은 6~10일 과정이다. 종교적인 믿음과 관련된 것들이 배제돼 있는 대신 일상에서의 평화와 행복, 자비에 관한 불교적 기술들이 내용에 포함돼 있다. 수행자세 또한 정형화돼 있지 않다.

그밖에도 3개월 간 바자르사트바 안거, 고급과정으로 숙련된 수행자들을 위한 1년 수행과정이 마련돼 있다.

●인도 명상 세계화 이끈 라즈니쉬 명상센터

<배꼽>이란 책의 저자로 잘 알려져 있는 오소 라즈니쉬(1931~1990)가 생전에 세운 명상센터다. 명상 공간을 중심으로 깔끔한 게스트 하우스, 카페와 식당, 공연장, 수영, 탁구, 농구 등 스포츠 시설, 미용실, 우체국, 마사지사실 그리고 책방들이 조화롭게 잘 배치돼 아늑한 분위기를 연출한다. 라즈니쉬 명상은 음악과 춤 등을 활용한 대중성으로 서구인들에게 큰 관심을 모았다.



오소 라즈니쉬 명상센터 입구.

명상센터는 전 세계에서 온 자원봉사자들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 프로그램은 아침 6시 광장에서 하는 아침 기제조를 시작으로 6가지 명상 프로그램을 센터 내의 사람들이 하루 중 원하는 시간대에 한 시간씩 원하는 장소에서 명상을 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과학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철저하게 개인지도 받는 것과 동일한 역학(사주명리, 사주추명)의 시청각 교재 DVD(디브이디) 출시 - 궁중비법 -

- 비매품 책자, 요점자료 동봉 -

어렵다는 역학을 누구나 쉽고 빠르게 한달 공부하면 완성할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반복하면서 보고 듣고 이해하며 필기하고 보충자료와 책자를 숙지하면 됩니다.

사주명식을 작성하는 즉시 확실하고 선명하게 운명이 보입니다. - 그레이 역학입니다 -

10만원 정도의 DVD 재생 기계를 구입하여 TV에 연결하여 보시면 됩니다. 역학에 대하여 전혀 지식이 없는 초보자라도 아주 쉽게 배우지며 단기간에 훌륭하고 정확하게 달변으로 통변하며 운명감정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얻어지는 그야말로 신비한 사주명리의 궁중비법입니다. 본 교재 저자인 저 백운성수는 조선조 9대 임금인 성종대왕의 19대 후손으로서 옛날 종친들에게 비급으로 전해지며 일반에 알려지지 않았던 궁중비법 사주명리학을 대(代)를 이어 정통으로 전수 받아 여러제자들에게 개인지도도 하여 현재는 국내외 400여명이 왕성히 활동하고 있으며 그 중에는 많은 스님들도 역학에 해안이 열려 큰 명성을 얻고 중생제도의 방편으로 쓰이며 크게 불사를 이루십니다. 역학(사주, 신수, 궁합, 택일, 애정, 재운, 관재, 자녀운, 기타 모든것)은 실제로 어려운 것이 아닌데 스승이나 책을 잘못 만나면 중도에 암흑의 망망 대해에 빠져서 평생 완성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3년해도 모르겠다, 10년은 배워야 된다, 무지하게 어렵다”라는 말을 합니다. 이교재는 이런 불확실성을 확 짚어내는 제대로 된 스승입니다. 전혀 염려하지 마세요. 순간 선택이 평생을 좌우합니다. 이 DVD에는 필자가 20여년간 국내외 수백명의 제자를 역학에 도통하도록 철저히 개인지도 해온 그대로를 총 26부(26시간)에 가감없이 실전 사주풀이 다수와 함께 담았습니다. 그 동안 배운의 뜻은 있었으나 국내외 원거리사정, 수강순서 늦어짐, 교역의 수강료, 기존 업을 하는 관계로 알려짐이 부끄러움 등으로 기회를 기다리던 분들에게 최고의 기회와 광명이 될 것입니다.

현재 본 DVD교재로 공부하시는 분들은 전국에 산재한 스님, 보살님, 철학원을 운영 하시고 있지만 적중률이 낮아서 성업 안되는 분, 퇴직후 장래직업으로 역학을 하실분, 초심자, 순수연구자, 학생 등 다양한 부류인데 전부가 하나같이 찬사와 감사의 메시지나 전화를 해 주시고 정말 제대로 된 배움의 길을 선택한데 대해 천만다행으로 생각하며 안도하고 행복해 합니다. 본 교재로 사주명리학을 완성하신 많은 분들이 이미 방문하셔서 대단한 감사를 표시하였으며 연하여 공수지리학을 수강하신 분들도 많습니다. 본 저자도 이 DVD교재로 인해서 수많은 분들이 진정한 역학적 개인이 어떻게 신속히 열려가는데 대해 놀라움을 금치 못하며 큰 기쁨과 보람을 느낍니다. 한글만 아시면 되며 학력과 관계없습니다. 쓰이는 한자는 22자이니 저절로 배워집니다. 주저하지 마시고 선택하세요. 아주 쉽게 단기간에 완성하며 평생의 훌륭한 길잡이가 됩니다. 불교 교리로 부터 시작되는 이론의 장엄한 전개는 당신을 견성에 이르는 기쁨을 맛보게하고 육바라밀 중 하나를 행하도록 지정해주는 당부로 운명감정이 끝이 나며 스스로와 친지들의 사주를 감정하면서 그 적중됨에 탄성을 발하게 됩니다.

이 교재를 만나는 사람은 큰 복을 받습니다. 장인이 눈을 떠서 대광명을 보듯이 신속하고 틀림없는 역학적 개인에 감동의 눈물을 흘립니다. 감사전화를 수 없이 받고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주문하십시오.

- ◆ 구입금액 : 일시불은 135만원, 할부가격은 150만원 (분납방법: 인도금 80만원, 한달후 40만원, 두달후 30만원)
- ◆ 계좌번호 : 농협 351-0001-3753-03 (예금주: 대한불교일월종 추명사)



사단 대 한 불 교 법인 사주명리 연구학회 추 명 사 백운 성수, 도영 합장

대구광역시 동구 중대동 450번지 전화 053)255-4784, 256-4784 / 휴대폰 018-531-2237, 011-9583-6161